

# 『물명고』 수록 한글대응어의 특징

---

박부자

성신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국어사) 전공

rich1125@sungshin.ac.kr

---

- I. 서론
  - II. 안어와 관련된 특징
  - III. 분포와 관련된 특징
  - IV. 항목 수와 관련된 특징
  - V. 결론
-

## I. 서론

그간 『물명고』에 수록된 한글대응어<sup>1</sup>를 대상으로 한 국어학적 연구는 수록된 국어 어휘를 일람하여 소개하고 음운론적, 형태론적으로 혹은 어휘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sup>2</sup> 이러한 접근은 『물명고』가 반영하고 있는 당

※ 이 논문은 2023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과제번호: H20230104).

이 글은 2023년 11월 1일에 개최된 ‘『물명고』의 종합적 검토’ 학술대회(주최: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한국학연구소·어문생활사연구소)에서 발표한 『물명고』에 수록된 우리말 풀이 [諺釋]의 특징의 일부를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필자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여 2014년, 2015년에 진행된 ‘물명고 역해 연구’(연구책임자: 황문환)와 2017~2022년 진행된 ‘조선 후기 물명 집성과 DB 구축’(연구책임자: 황문환)의 결과물로 『물명고 역해』 13권을 출판하는 과정은 이 글을 작성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되었다. 귀한 연구자료를 제공해 주신 연구책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1 ‘한글대응어’라는 용어는 신중진, 「곡물명 수록 어휘 자료집의 계보와 그 어휘 목록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54(2013), 67~95쪽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심경호, 「柳僖 『物名考』의 注文과 按語에 대한 일 고찰」, 『조선시대 물명 연구의 현황과 과제』(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한국학연구센터, 2014), 33~52쪽이나 황문환, 「柳僖의 才物譜 비판을 통해 본 『物名考』의 차별성: 1807년 「柳僖가 李晩永에게 보낸 편지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2(2016), 79~113쪽에서도 한자로 표기된 표제어에 대해 한글로 표기된 부분을 ‘한글대응어’라 지칭한 바 있다. 다만 앞선 연구에서는 ‘한글대응어’의 개념이나 사용 배경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된 바 없었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한글대응어’는 앞선 연구를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물명고』의 자료적 특성과 관련하여 ‘한글대응어’라는 용어를 받아들인 배경을 I 장 말미에 간단히 서술할 것이다.
- 2 『물명고』를 주대상으로 한 국어학적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백승창, 「『物名考』類에 대한 國語學的 研究: 어휘 분류와 조어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9); 신경철, 「『物名考』의 動物名 語彙考」, 『論文集 3』(1984), 1~21쪽; 신경철, 「『物名考』의 植物名 語彙考」, 『羨鳥堂 金炯基 先生 八耋紀念國語學論叢』(서울: 창학사, 1985), 233~254쪽; 신경철, 「『物名考』의 無生物名 語彙考」, 『論文集 5』(강원: 상지대학병설실업전문대학, 1986), 1~21쪽; 신경철, 「『物名考』의 語彙 考察」, 『한국언어문학』 25(1987), 41~66쪽; 신중진, 「곡물명 수록 어휘 자료집의 계보와 그 어휘 목록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54(2013), 67~95쪽; 신중진, 「사전학적 관점에서 본 『物名攷』와 『才物譜』의 영향 관계」, 『진단학보』 120(2014), 105~127쪽; 양연희, 「物名類攷에 관한 고찰: 語彙, 音韻

시 국어 어휘의 특징이나 이를 바탕으로 한 시기적 특징을 살펴보는 데에는 매우 유용한 것이지만, 『물명고』에서 한글대응어를 제시함에 있어 관련된 다른 문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특징이 제대로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웠다.

유희는 『물명고』를 저술하면서 한자물명에 대응되는 당시 우리말을 제시하는 데 있어 여러 문헌을 참조했다.<sup>3</sup> 다만, 참조한 문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한자물명에 대한 한글대응어의 옳고 그름을 따져 비판하면서 합당한 당시의 우리말을 반영하기 위해 “널리 상고”했다.<sup>4</sup> 그 결과, 한자물명에 대응되는 한글대응어의 정확성 여부를 떠나, 다른 자료와 차별되는 『물명고』만의 특징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물명고』에 수록된 한글대응어의 형태나 구조, 의미 등에 집중하기보다 한글대응어를 제시함에 있어 『물명고』가 관련 문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물명고』 수록 한글대응어의 특징을 드러내고자 한다.<sup>5</sup> 이를 위해 『물명고』 수록 한글대응어의 특징을 안어(按語)와 관련된 특징, 분포와 관련된 특징, 항목 수와 관련된 특징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

과 文字表記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76); 윤향립, 「물명어휘집의 계통과 어휘 연구」,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8); 전광현, 「『물명류고』의 이본과 국어학적 특징에 대한 관건」, 『새국어생활』 10-3(2000), 43~62쪽.

3 『물명고』에서 한글대응어와 관련한 인용 문헌에 대해서는 박부자, 「『물명고』에 수록된 우리말 풀이[諺釋]의 특징」, 『물명고』의 종합적 검토」 학술대회 발표자료집(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한국연구소·어문생활사연구소, 2023), 155~184쪽을 참조할 수 있다.

4 유희가 『재물보』를 저술한 이만영에게 보낸 편지에는 직접적으로 한글대응어와 관련하여 “널리 상고”해야 한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원문과 번역은 황문환, 앞의 논문(2016), 91쪽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注를 붙일 때 반드시 잘 살펴서 한 책만을 의거하여 허겁지겁 믿어서는 안 됩니다. 대개 여러 가지 術數의 註釋과 새 짐승 풀 나무에 대한 우리말풀이[諺釋]가 자칫 틀리기 가장 쉬우니 마땅히 널리 상고해야 합니다[是其注脚之必察無以一書之據而信之也 凡諸術數之注釋及鳥獸草木之諺釋最易杜撰必當博考].”

5 이 글은 유희 후손가에 소장되어 전하다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기탁되어 소장 중인 장서각 소장본 『물명고』를 대상으로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언급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물명고』에서는 한자로 표기한 물명과 한글로 표기한 물명의 지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한자로 표기한 물명에는 중국 물명, 국어의 한자어 물명, 국어 고유어나 차용어를 한자를 빌어 표기한 차자표기 물명, 산스크리트어 등 외국어의 음차 표기 물명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한자로 표기한 물명은 표제어 혹은 유의어로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1가]의 중국 물명 ‘鵠’에 대한 ‘梵語’로 제시된 [1나]의 ‘迦布德迦’는 산스크리트어 음차표기이다. 우리나라 영남 문경 땅에 있는 샘으로 소개한 [1다]의 ‘潮汐泉’은 국어의 한자어 물명에 해당하며, 표제어로 제시된 [1라]의 ‘豆乙粥’은 바로 고유어 ‘들죽’을 차자표기한 것으로 중국의 문헌에는 보이지 않는다.<sup>6</sup> [1마]의 ‘澹泊塊’는 『물명고』에서 우리나라 세속에 와전된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담바괴’를 차자 표기한 것에 해당된다.<sup>7</sup> ‘담바괴’는 ‘tabaco’가 일본을 거쳐 우리말에 차용된 ‘담바고’<sup>8</sup>에 ‘ㅣ’가 첨가된 형태로 알려져 있다.<sup>9</sup> 따라서 이 글에서 ‘한자물명’은 어휘의 성격이나 기원적인 분류에 상관없이 『물명고』에서 “한자로 표기한 물명” 모두를 가리키되, 표제어와 유의어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표제어 혹은 유의어로 지시할 것이다.

[1] 『물명고』 수록 한자물명의 종류

가. 중국 물명 : 鵠, 鶻, 飛奴 …

나. 외국어 음차표기 물명 : 迦頻闍羅

---

6 황문환·김건곤·김덕수·김동석·김봉좌·김정민·박부자·박용만·안장리·이화숙·조영준·조정아·황선엽, 『물명고 역해 7』(서울: 역락, 2023g), 86~87쪽.  
 7 황문환·김건곤·김덕수·김동석·김봉좌·김정민·박부자·박용만·안장리·이화숙·조영준·조정아·황선엽, 『물명고 역해 8』(서울: 역락, 2023h), 120쪽.  
 8 김민수(편), 『우리말 語源辭典』(서울: 태학사, 1997), 235~236쪽.  
 9 조항범, 『국어 어원론』(청주: 도서출판 개신, 2009), 321쪽; 황문환 외, 앞의 책(2023h), 119쪽.

鶻【집비둘기】鶻鶻·飛奴·銀合·海鹽·倒插點子·毛脚·鳳鬢·黑夜遊·半天  
嬌·挿羽佳人【全】迦布德迦【梵語】〈물명고 권: 4b〉

다. 국어의 한자어 물명: 潮汐泉

潮汐泉【我東嶺南閩慶地有泉 每日潮汐候時 湧出如射 俄而乾涸 或云 耽羅國  
多有之】〈물명고 권: 58b〉(潮汐泉【우리나라의 영남 문경 땅에 샘이 있는데  
날마다 밀물과 썰물 때를 기다려 마치 쏘는 것처럼 용솟음치다가 잠깐 사이에  
말라버린다. 혹자는 탐라국에 이런 것이 많다고 한다.】)<sup>10</sup>

라. 국어 고유어의 차자표기 물명: 豆乙粥

○豆乙粥【我東北道地有所謂豆乙粥者 子如五味子 而無核 味甘 酸過之 充果  
高品 芝葦疑爲蒟醬 然不辛 故非也】〈물명고 권: 3a〉(○豆乙粥【우리나라 동  
북도 지역에 있는 이른바 ‘豆乙粥’은 씨가 오미자와 같으나, 핵이 없다. …(이  
하 생략)】)<sup>11</sup>

마. 국어 차용어의 차자표기 물명: 澹泊塊

澹泊塊【東俗翻訛】〈물명고 권: 12b〉(澹泊塊【우리나라 세속에서 이름을 잘  
못 옮긴 것이다.】)<sup>12</sup>

한편, 『물명고』에서 한글로 표기한 물명에는 국어 고유어 물명, 한자어 물  
명, 차용어 물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sup>13</sup> 때로는 물명 어휘가 아닌 구 구성  
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글로 표기한 물명은 철저히 한자를 표기한 물명의  
주해 속에서만 나타난다. 예를 들면, [2가]의 고유어 물명 ‘드렁허리’는 ‘두

10 황문환·김건곤·김덕수·김동석·김봉좌·김정민·박부자·박용만·안장리·이화숙·조영  
준·조정아·황선엽, 『물명고 역해 13』(서울: 역락, 2023m), 306쪽.

11 황문환 외, 앞의 책(2023g), 86쪽.

12 황문환 외, 앞의 책(2023h), 119쪽.

13 이를 좀 더 세세하게 나눈다면, [한자어+고유어], [한자어+차용어]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령'을 뜻하는 '드령'과 '헐다, 무너뜨리다'를 의미하는 동사 '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sup>14</sup> [2나]의 '가서목'은 한자어 '哥舒木'을 한자음을 적은 것으로 동일한 물명의 한자표기는 표제어로, 한글표기는 주해 속에 대응어로 제시되었다. [2대]의 '절다'는 '붉은색'을 의미하는 몽골어 'je'erde'에서 차용된 말로 알려져 있다.<sup>15</sup> [2라]의 표제어 '甌氣水'에 대해서는 명사구 '더훈 김 서린 물'이라 풀이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 '한글대응어'는 어휘의 성격이나 기원적인 분류에 상관없이 『물명고』에서 "한글로 표기한 물명 어휘 혹은 구" 모두를 포함한다.<sup>16</sup>

[2] 『물명고』 수록 한글대응어의 종류

가. 국어 고유어 물명: 드령허리

○ 鱓【鱓同 生泥窟 似蛇細長 드령허리】〈물명고 권: 20b〉(○ 鱓【'鱓'과 같다. 진흙 굴에 살고 '蛇'와 비슷하며 가늘고 기니 '드령허리'이다.】)<sup>17</sup>

나. 국어 한자어 물명: 가서목(哥舒木)

○ 哥舒木【我東海邊有稱가서목者 亦柞·楸一類 材甚堅緻 宛如犀理 而未知其當屬何名 漫附之】〈물명고 권: 37a〉(○ 哥舒木【우리나라 바닷가에 '가서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하 생략)]<sup>18</sup>

14 황문환·김건곤·김덕수·김동석·김봉좌·김정민·박부자·박용만·안장리·이화숙·조영준·조정아·황선엽, 『물명고 역해 3』(서울: 역락, 2023c), 208쪽.

15 이기문, 『國語語彙史研究』(서울: 동아출판사, 1991), 133쪽.

16 엄밀히 말하자면, '한글대응어'라는 용어는 어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물명고』에서 구 구성으로 풀이된 경우가 한글대응어 전체의 2%(전체 항목 수 1,699개 중 34개)에 불과하고 유희는 한글대응어를 제시함에 있어 널리 상고하고 논증하여 당시 대응하는 우리말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한글대응어'로 한자물명에 대응하여 한글로 표기한 어휘와 구를 모두 포괄하여 지시하고자 한다.

17 황문환 외, 앞의 책(2023c), 207쪽.

18 황문환·김건곤·김덕수·김동석·김봉좌·김정민·박부자·박용만·안장리·이화숙·조영

다. 국어 차용어 물명: 절다

駢【赤黃 절다】〈물명고 권: 9a〉

라. 구 구성: 더훈 김 셔린 물

甌氣水【釜甌中熱氣 蒸悶成水 더훈김셔린물】〈물명고 권: 54b〉(甌氣水【술과 시루 속에 열기가 후끈하게 셔린 물이 된 것이다. '더훈 김 셔린 물'이다.】)<sup>19</sup>

마지막으로 이 글의 연구 범위를 언급해 두고자 한다. 이 글은 한글대응어를 제시함에 있어 『물명고』가 관련 문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물명고』에서 한글대응어와 관련하여 직접 언급한 인용문헌을 중심으로 그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물명고』에서 언급한 『시경언해』나 『동의보감』, 『역어유해』, 『재물보』 이외에도 이철환의 『물보』 등 이전에 간행된 여러 물명서들이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이를 모두 다 포괄하지 않는 것은 한글대응어를 제시하는 방식이 『재물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어휘 하나하나를 대조하여 음운, 형태 등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명고』에서 한글대응어와 관련하여 직접 언급한 인용문헌으로 범위를 좁혀 『물명고』와 대조하는 “선택과 집중”의 방법을 택했음을 밝혀 둔다.

## II. 안어와 관련된 특징

『물명고』의 ‘안어(按語)’는 『물명고』가 다른 물명서와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는 것 중 하나이다.<sup>20</sup> 『물명고』의 ‘안어’는 이미 “조선 후기의 다른 한자어

준·조정아·황선엽, 『물명고 역해 11』(서울: 역락, 2023k), 223쪽.

19 황문환 외, 앞의 책(2023m), 124쪽.

20 황문환·김건곤·김덕수·김동석·김봉좌·김정민·박부자·박용만·안장리·이화숙·조영

휘분류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sup>21</sup>으로 평가된 바 있는데, 이는 한글대응어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물명고』가 “철저한 고증을 근본으로 사전을 편찬하는 자세를 가졌다”<sup>22</sup>는 평가 또한 한글대응어에 대한 안어를 통해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는 면모이다. 때문에 『물명고』에서 한글대응어를 대상으로 상세한 안어를 베풀고 있는 것 자체가 『물명고』 수록 한글대응어와 관련된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를 “고증의 과정”을 담은 경우와 기존 어휘집의 잘못된 한글대응어를 비판하고 관련하여 “과제를 제시”한 경우로 나누어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고증의 과정을 담은 한글대응어

『물명고』는 한자물명과 한글대응어를 1:1의 관계로 제시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sup>23</sup> 한자물명과 우리말 물명의 대응 관계를 밝히는 논증의 과정을 담고 있다. 이것이 기존 물명서를 포함한 어휘집에 수록된 한글대응어와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특히 『물명고』의 대본이라 알려져 있는 『재물보』<sup>24</sup>와도 이 부

---

준·조정아·황선엽, 『물명고 역해 1』(서울: 역락, 2023a), 370쪽.

- 21 김경호, 「朝鮮後期 漢字語彙分類集에 관하여」, 『朝鮮後期 漢字語彙 檢索辭典』(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27쪽.
- 22 홍윤표, 「柳僖의 『物名攷』」, 『어문연구』 28-4(2000), 295쪽.
- 23 홍윤표, 「『物名考』에 대한 고찰」, 『진단학보』 118(2013), 204쪽에서는 “표제항과 한글 주석이 1:1의 대응 관계를 이룬다.”고 했으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1:多의 관계로 한글대응어를 복수로 제시한 경우도 있으며, 안어에서 논증을 통해 한자물명에 대한 기존의 한글대응어를 모두 부정한 후 해당 한자물명에 대한 한글대응어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1:0의 관계가 된 경우도 있다.
- 24 전광현, 「『물명류고』의 이본과 국어학적 특징에 대한 관건」, 『새국어생활』 10-3(2000), 4쪽. 이후 황문환·김정민, 「『才物譜』의 이본 계열과 선후 관계」, 『국어사 연구』 35(2022), 175~212쪽에서는 『재물보』의 이본을 다루면서 『재물보』가 『물명고』의 대본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재물보』 4책본이 아니라 8권본임을 밝힌 바 있다.



분에 있어 매우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① 한자물명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고증: ‘팅알’과 ‘풀소옴나물’

『물명고』에서는 앞선 문헌의 한글대응어가 한자물명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고증하는 내용을 안어를 통해 베푼 바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紫菀’과 ‘女菀’의 한글대응어 ‘팅알’과 ‘풀소옴나물’을 들 수 있다. 관련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동의보감(1613) 탕액편3: 6b〉

紫菀【팅알 … 又有白菀 卽女菀也 療體相同 無紫菀時 亦可通用【本草】】(紫菀【팅알 … 또 ‘白菀’이라는 것도 있는데, 곧 ‘女菀’을 말한다. 그 효능이 ‘紫菀’과 같으니 ‘紫菀’이 없을 때는 대응할 수 있다.【本草】】)

〈재물보(4책본) 冬: 68b〉<sup>25</sup>

紫菀【布地生苗 葉二四相連 夏開黃白紫花 結黑子 本有白毛 根柔細】○青菀·紫菀·返魂草·夜牽牛【(本)】仙菜【連根葉浸醋收藏曰仙菜】○女菀【似紫菀而根白】白菀·茆·白羊鬚【(全)】(紫菀【땅에 넓게 깔리면서 싹이 나고, 잎이 2~4개가 서로 이어져 있다. 여름에 황백색이나 자색 꽃이 피고 검은 씨가 맺히며 본래 흰 털이 있다. 뿌리는 부드럽고 가늘다.】… ○女菀【‘紫菀’과 비슷하면서 뿌리가 흰 것이다.】…(이하 생략))

〈재물보(8권본) 8: 38a〉<sup>26</sup>

25 『재물보』와 『물명고』의 원문에 대두가 되어 있는 부분은 내어쓰기로 제시했다. 이하 동일하다.

26 『재물보』 8권본의 한문 주해는 4책본과 동일하므로 4책본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紫菀【풀소옴나물 音盃 布地生苗 葉二四相連 夏開白黃紫花 結黑子 本有白毛 根甚柔細 팅알】靑菀○紫蒨○返魂草○夜牽牛【別名】○仙菜【連根葉浸醋收藏 曰仙菜】

○女菀【似紫菀而根白】白菀○茆○白羊鬚【別名】

〈물명고 곤: 14b〉

紫菀【音鬱 布地生苗 葉二四相連 茸多白毛 夏開黃花 或有白紫花 結黑子 今用풀소옴나물 然根不柔潤 恐非 今人以팅알爲紫菀 而似풀소옴當女菀爲是 팅알初生時 色紫無白毛】靑菀·紫蒨·返魂草·夜牽牛【全】仙菜【連根葉浸醋收藏者】○女菀【似紫菀而根白者】白菀·茆·白羊鬚【全 以白羊鬚三字規之 則正合今之풀소옴나물也 紫菀則東醫謂之팅알 팅알與풀소옴少異 而大抵皆比唐產者不及】(紫菀【… 땅에 넓게 깔리면서 싹이 나고, 잎이 2~4개가 서로 이어져 있으며, 새싹에는 흰 털이 많다. 여름에 노란 꽃이 피는데 혹은 흰색이나 자색 꽃이 피거나 검은 씨가 맺힌 것도 있다. 지금 쓰는 ‘풀소옴나물’이라 하나, 뿌리가 부드럽지도 않고 반질반질하지도 않아서 아마도 아닌 듯하다. 지금 사람들이 ‘팅알’을 ‘紫菀’이라 하고, ‘풀소옴’을 ‘女菀’로 여기는데 옳다. ‘팅알’은 처음 날 때 자색이고 흰 털이 없다.】… ○女菀【‘紫菀’과 비슷하면서 뿌리가 흰 것이다.】白菀·茆·白羊鬚【(‘女菀’과) 같다. ‘白羊鬚’ 세 글자를 보면 바로 지금의 ‘풀소옴나물’과 합치한다. ‘紫菀’은 『동의보감』에서 ‘팅알’이라 하였는데, ‘팅알’과 ‘풀소옴’은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모두 중국에서 나는 것과 비교하면 미치지 못한다.】)<sup>27</sup>

위 문헌들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먼저 『동의보감』에서는 ‘紫菀’의 한글대응어로 ‘팅알’을 제시했으나 『재물보』 8책본에서는 ‘紫菀’의 한

27 황문환 외, 앞의 책(2023h), 192쪽.

표1- '紫苑'과 '女苑'의 한글대응어 비교

	표제어	한글대응어	주해
동의보감	紫苑	팅알	생태적 특성만 설명
재물보(4책본)	紫苑	---	생태적 특성만 설명
	女苑	---	생태적 특성만 설명
재물보(8권본)	紫苑	풀소옴나물, Tingal	생태적 특성만 설명
	女苑	---	생태적 특성만 설명
물명고	紫苑	풀소옴나물×, 팅알○	생태적 특성 + 흰털이 무성하고 많다(茸多白毛) … 뿌리가 부드럽지도않고 반질반질하지 않아서 '풀소옴나물'은 아닌 듯하다 … '탱알'은 처음 날 때 자색이고 흰 털이 없다.
	女苑	풀소옴나물	생태적 특성 설명 + (유의어) '白羊鬚' 세 글자를 보면 바로 지금의 '풀소옴나물'과 합치한다.

글대응어로 '풀소옴나물'을 앞세우고 뒤에 '팅알'을 다시 제시했다. 그런데 『재물보』 8권본에서는 『동의보감』이나 『재물보』 4책본에 언급된 바 없는 '풀소옴나물'이라는 우리말 물명을 '紫苑'에 대해 새로이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또 '풀소옴나물'을 제시하면서도 '팅알'을 제외하지 않고 주해의 마지막에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sup>28</sup> 한글대응어에 대한 『재물보』의 주해가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紫苑'에 대해서도 고증 과정은 생략한 채 대응 결과로서만 한글대응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동의보감』에서 『물명고』에 이르기까지 주해에서 '紫苑'과 '女苑'의 생태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본초강목』을 인용한 '紫苑'과 '女苑'의 생태적 특성은 『재물보』뿐 아니라 『물명고』에도 그대로 이어진다.<sup>29</sup> 그러나 『물

28 『재물보』에서는 결국 '紫苑'에 대해 '풀소옴나물'과 '팅알'이 이칭 관계에 있는 것으로 제시된 셈이다.

29 '紫苑'과 '女苑'의 생태적 특성에 대한 주해가 『본초강목』을 인용한 것임은 황문환 외, 앞의

명고』에서는 이러한 생태적 설명에 그치지 않았다. ‘폴소옴나물’의 특징이 ‘紫菀’과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紫菀’은 ‘폴소옴나물’이 아닌 듯하다고 했고,<sup>30</sup> ‘女菀’의 유의어인 ‘白羊鬚’ 세 글자가 ‘폴소옴’의 특성과 일치한다고 했다. 결국 ‘紫菀’은 ‘팅알’, ‘女菀’은 폴소옴나물로 처리하면서<sup>31</sup> ‘紫菀’을 ‘폴소옴나물’로 볼 수 없는 이유와 ‘女菀’을 ‘폴소옴나물’로 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상세한 按語를 추가로 베풀고 있는 것이다.<sup>32</sup>

이와 같이 한글대응어가 한자물명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고증의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은 조선 후기의 물명서 중 『물명고』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sup>33</sup>

책(2023h), 193~196쪽을 참조할 수 있다.

30 유희의 또 다른 저술인 「만물류」에서도 ‘紫菀’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참조된다.

○ 紫菀 東俗所用폴소옴나물 根太細 不潤 軟 可疑 <문통10: 26b>

「만물류」에서 “紫菀은 우리나라 세속에서 쓰는 ‘폴소옴나물’”이라고 한 것은 『동의보감』에서 ‘紫菀’에 대해 ‘팅알’이라 한 것에 대해 비판함과 동시에 ‘紫菀’을 ‘폴소옴나물’이라고 한 『재물보』 8권본을 참조한 결과로 추정된다. 그러나 ‘紫菀’과 ‘폴소옴나물’의 생태적 특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에 주목하여 ‘紫菀’을 ‘폴소옴나물’이라 하는 것에 대해 “의심할 만하다[可疑].”고 했다. 이러한 의심이 『물명고』를 기술하면서도 확신으로 반영되어 다시 ‘紫菀’을 ‘팅알’로 보는 『동의보감』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선회했고, ‘紫菀’이 아닌 ‘女菀’이 ‘폴소옴나물’이라고 정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1 『광재물보』에서는 ‘紫菀’에 한글대응어 ‘폴소옴나물’을 제시함으로써 『재물보』를 계승한 양상을 보이면서도, ‘女菀’의 한글대응어로 ‘팅알’을 제시하고 있어 약간의 변개를 가한 모습을 보인다.

紫菀【폴소옴나물】靑菀·紫菀·返魂·草夜·牽牛·仙菜【連根葉採之醋浸鹽藏者】女菀【팅알卽紫菀之白者】女復·白菀·織女菀·羊鬚草 <광재물보 3: 20b>

32 이 외에도 황문환·김정민, 앞의 논문(2022), 175~212쪽에서 『재물보』 4책본과 8권본의 선후 관계를 밝히는 사례로 언급한 ‘陸英’과 ‘虎杖’의 한글대응어 역시 “고증을 담은 한글대응어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3 다만 유희가 『물명고』에서 한글대응어와 관련하여 이러한 고증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 고증이 반드시 타당하며 당시의 언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희의 고증이 타당한지 당시의 언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른 차원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② 고증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글대응어와 근거 추가: ‘노어’와 ‘걱정어’  
『물명고』에서는 한자물명 ‘鱸’에 대한 고증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글대응어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추가하기도 했다. ‘鱸’를 대상으로 관련 문헌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동의보감(1613) 탕액편2: 3b〉

鱸魚【로어 性平 味甘 有小毒 …《本草》】(鱸魚【‘로어’이다. 성질이 평하고 맛은 달며 독이 조금 있다 …(이하 생략)】)

〈역어유해(1690) 하: 37b〉

鱸魚【롱어】

〈재물보(4책본) 冬: 27a〉

鱸魚【出松江 四五月方出 長莖數寸 狀似鰕而色白 有黑點 巨口細鱗 有四腮 今以 농어稱鱸非】○四腮魚【(本)】(鱸【송강에서 4-5월에 나오는데, 길이가 몇 치이다. ‘鰕’과 비슷한데 색이 희고 검은 점이 있으며, 입이 크고 비늘이 자잘하며, 네 개의 아가미가 있다. 지금 ‘농어’로 칭하는 것은 ‘鱸’가 아니다.】…(이하 생략))

〈재물보(8권본) 7: 30b〉

○鱸魚【出松江 四五月出 長數寸 狀似鰕而色白 有黑點 巨口細鱗 有四腮 今稱 농어 非是】四腮魚【別名】

〈물명고 권: 20a〉

鱸【出松江 四五月出 長數寸 似鰕 而色白有黑點 巨口細鱗 有四腮 東俗所謂걱정어 是也】四腮魚【全 ○ 東海有謂노어者 大如鰕而色斑 二腮 非江湖間數寸長之鱸】

魚也】(鱸【송강에서 4~5월에 나오는데, 길이가 몇 치이다. ‘鱸’과 비슷한데 색이 희고 검은 점이 있으며, 입이 크고 비늘이 자갈하며, 네 개의 아가미가 있다. 우리나라 세속에서 ‘걱정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四腮魚【(‘鱸’와) 같다. ○ 동해에 있는 ‘농어’라는 놈은 크기가 ‘鯿’과 같으면서 색이 얼룩덜룩하며, 아가미가 2개이니, 강과 호수 사이에 사는 몇 치 길이의 ‘鱸魚’가 아니다.】)<sup>34</sup>

‘鱸’에 대한 관련 문헌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동의보감』에서는 ‘鱸魚’에 대해 한글대응어 ‘로어’를, 『물명고』의 인용 문헌 중 하나인 『역어유해』<sup>35</sup>에서는 한글대응어로 ‘로어’에서 변화한 ‘롱어’를 제시한 바 있다. 『재물보』 4책본과 8권본에서는 모두 ‘鱸魚’를 표제어로 제시하고 그 특징을 소개한 다음 “지금 ‘농어’로 칭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재물보』의 이와 같은 지적은 ‘鱸魚’에 한글대응어 ‘로어(→롱어)’를 대응시킨 기존 어휘집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물보』에서는 한자표제어 ‘鱸魚’

표2-‘鱸’에 대한 한글대응어 관련 내용

	표제어	우리말표어	주해
동의보감	鱸魚	로어	생태적 특성 설명
역어유해	鱸魚	롱어	--
재물보(4책본)	鱸魚	농어x	생태적 특성 설명
재물보(8권본)	鱸魚	농어x	생태적 특성 설명
물명고	鱸	걱정어(담수어) 농어(해수어)	생태적 특성 설명 + ‘농어’가 鱸魚가 아닌 근거 제시

34 황문환 외, 앞의 책(2023c), 173쪽.

35 박부자, 앞의 논문(2023), 160~162쪽.

에 대한 한글대응어 ‘농어’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지적에서 그칠 뿐 이에 대한 근거나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sup>36</sup>

한편, 『물명고』에서는 ‘鱸’에 대해 기존 어휘집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걱정어’를 한글대응어로 제시하고 『재물보』와 동일한 생태적 특성에 대한 설명에 더하여<sup>37</sup> ‘鱸’가 우리의 ‘노어(>농어)’가 아니고 ‘걱정어’인 근거에 대해 안어를 추가로 베풀었다. 즉 ‘鱸魚’는 담수어이므로 우리의 ‘걱정어’이고 우리의 ‘농어’는 해수어이므로 ‘鱸魚’가 아니라는 설명을 추가한 것이다.<sup>38</sup>

‘鱸’에 대한 해수어와 담수어의 구분은 정약용의 『아언각비』 등에도 유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니<sup>39</sup> 유희의 독자적인 견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물명고』에서 『동의보감』을 따르지 않고 혹은 『재물보』와 같은 처리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한글대응어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근거를 按語를 통해 베풀고 있다는 것은 ‘걱정어’ 및 ‘노어’와 관련된 유희의 고증을 짐작케 한다.

---

36 이것이 『재물보』에서 보이는 이만영의 안어라면 안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물명고』에서 보이는 유희의 안어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점이라 할 수 있다.

37 『재물보』와 『물명고』에서 설명하고 있는 ‘鱸’의 생태적 특성에 대해 『본초강목』에 비슷하면 서도 자세한 풀이가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황문환 외, 앞의 책(2023c), 173쪽을 참조할 수 있다.

38 동일한 내용이 유희의 다른 저술인 「만물류」에서도 확인된다. 「만물류」에서도 ‘鱸魚’의 형태적 특징을 설명한 후 “강과 호수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곧 지금의 ‘걱정어’로서 사실 바닷속의 ‘농어’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鱸魚，長數寸，似鰻而色白，有黑點，巨口細鱗，有四鰓，出江湖，卽今之걱정어，實非海中之농어也. <문통10: 28b>

39 『雅言覺非』(권3)에서는 “바다 농어와 강 농어는 같지 않다[海鱸與江鱸不同].”고 하면서 “申承旨가 “오늘날 ‘居億貞伊【씩정어】’라고 하는데, 입이 크고 비늘이 가늘며 색이 검은 것이 쏘가리와 같고 크기는 붕어와 같다. 바다 농어는 같은 족류가 아니다[申紳承旨云 今之所謂居億貞伊【씩정어】巨口細鱗【赤壁賦】色黑如鰻 其大如鮒 非海鱸之族也].”라고 했다.”는 전언을 적었다.

## 2. 잘못된 한글대응어의 삭제 및 과제 제시

『물명고』에서 한글대응어를 제시할 때, 기존 어휘집에서 제시한 한글대응어가 잘못된 경우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한자물명에 부합하는 한글대응어를 찾아 제시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던 ‘紫苑’과 ‘女苑’도 그런 경우이다. 그런데 치밀한 상고 끝에, 기존의 어휘집에서 제시한 한글대응어가 부합하지 않으면 이를 비판하면서도 해당 한자물명에 부합하는 다른 물명을 다시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기존의 어휘집에서 소개한 한글대응어 중 한자물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은 과감히 삭제하기도 했다. ‘雉鳩’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雉鳩’는 황문환·김정민의 연구에서 『물명고』가 『재물보』 8권본을 계승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된 것이다.<sup>40</sup>

본래 『시경언해』에서는 ‘雉鳩’도 ‘증경이’라 하고 ‘원앙’도 ‘증경이’라고 하여 모순을 지니고 있었다. 『동의보감』에서는 ‘雉鳩’는 수록하지 않고 ‘鴛鴦’에 대해 한글대응어로 ‘증경이’를 제시했다. 이후 『재물보』 4책본에서 ‘鴛鴦’에 대해서는 한글대응어를 제시하지 않고 ‘雉鳩’에 대해서만 ‘증경이’라고 했는데 『재물보』 8권본에서 ‘雉鳩’를 ‘증경이’로 풀이한 것에 대한 근거로 『시경언

---

40 ‘雉鳩’와 관련하여 황문환·김정민, 앞의 논문(2022), 175~212쪽에서 드러난 사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①은 『물명고』가 『才物譜』(8권본)을 계승한 부분을 보인 것인 반면, ②와 ③은 『물명고』가 『才物譜』와 견해를 달리한 부분을 보인 것이다.  
① 『才物譜』(8권본)에서 추가된 『시경언해』와 『본초강목』 부분이 『물명고』에 그대로 이어진다.  
② 『才物譜』(4책본, 8권본)에서 ‘雉鳩’를 ‘오리류[鳥類]’로 분류했지만, 『물명고』에서는 ‘鴛鴦’을 ‘수리류’에 가깝다고 보았다.  
③ 『才物譜』, 특히 8권본에서 『시경언해』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雉鳩’의 한글대응어로 ‘증경이’를 제시했지만, 『물명고』에서는 『시경언해』에서 ‘증경이’라고 풀이한 말을 비판하면서 ‘증경이’가 ‘鴛鴦’(『물명고』에서는 ‘元央’)에 해당되기 때문에 ‘雉鳩’의 대응어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해』를 언급했다. 그런데 『물명고』에서는 “『시경언해』에서 ‘증경이’라고 풀이한 말은 아마도 틀린 듯하다.”고 비판하면서 ‘元央’을 ‘증경이’로 풀이하고 『동의보감』을 근거로 삼았다. 결국 <표3>에 정리한 것처럼, 『물명고』에서는 『동의보감』을 수용하여 ‘증경이’가 ‘鴛鴦’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鴟鳩’의 대응어로는 적합지 않다고 본 듯하다.”<sup>41</sup> 그리고 ‘鴟鳩’에 대해서는 ‘증경이’가 아니라고만 했을 뿐, ‘鴟鳩’에 대응되는 한글대응어를 다시 제시하지 않았다.

<시경언해(1613) 1: 물명1a> 鴟鳩저구【증경이】

<시경언해(1613) 14: 물명1a> 鴛鴦 원앙 卽今 증경이】

鴟鳩【원앙 卽今 증경이】

<동의보감 탕액편1: 39a> 鴛鴦【증경이】

<재물보(4책본) 冬: 4a>

鴛鴦【南方湖溪中有之 栖土穴中 杏黃色 紅頭翠鬣 頭有白長毛】○黃鴨·匹鳥

【(本)】婆羅迦·隣提【(梵書)】(鴛鴦【남쪽 지역의 호수와 시내에 있다. 땅속의 구멍에 사는데, (몸은) 살구빛 같은 노란색이고, 붉은 머리에 푸른 갈기가 있으며, 머리에 흰색의 긴 털이 나 있다.】…(이하 생략))

鴟鳩【鳧類 在水邊 尾有一點黑 或云狀如鴛鴦 증경이】○王雉【爾】(鴟鳩【오리류이다. 물가에 산다. 꼬리에 검은색 점이 하나 있다. 어떤 사람은 모양이 원앙 같다고 한다. ‘증경이’이다 …(이하 생략))

<재물보(4책본) 冬: 9b>

鴟【鵂類 土黃色 深目 好峙 李時珍以鴟爲關雉之鴟鳩 未知是否】○魚鷹·鵂雞·雉

41 황문환·김정민, 앞의 논문(2022), 175~212쪽.

鳩·王雎·沸波·下窟鳥【(本)】(鶡【수리류이다. 황토색이고 눈이 움푹하며 우뚝히 서 있기를 좋아한다. 이시진은 ‘鶡’가 ‘關雎’의 ‘雎鳩’라 하였는데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다.】…(이하 생략))

〈재물보(8권본) 7: 4a〉

○鴛鴦【栖土穴中 杏黃色 紅頭翠鬣 頭有白長毛】黃鴨○匹鳥【(別名)】婆羅迦○隣提【(全) (梵)】

〈재물보(8권본) 7: 4b〉

○雎鳩【鳥類 尾有一點黑 或云狀如鴛鴦 詩傳諺解云증경이 李時珍曰 雎鳩鶡也 土黃色 深目 好峙 雄雌相得 摯有別 交則雙翔 別則異處 翱翔水上 捕魚食 江表人呼爲食魚鷹】魚鷹○王雎○雕鷄【(別名)】鷹【一名王雎楊鳥】下窟鳥【能入穴取食 故謂之下窟鳥】沸波【翱翔水上 扇魚今出故名】鶡【狀可愕故曰鶡】(雎鳩【오리류이다. 꼬리에 검은색 점이 하나 있다. 어떤 사람은 모양이 원앙 같다고 한다. 『시경언해』에서 ‘증경이’라고 하였다. 이시진은 ‘雎鳩’가 수리라고 하였다. …(이하 생략)】)

〈물명고 건: 4a〉

雎鳩【土黃色 深目 好峙 雄雌相得 交則雙翔 別則異處 翱翔水上 捕魚食 詩諺解謂 증경이 恐非】白鷹·王雎·楊鳥·鳩鶡·雕雞·魚鷹·下窟鳥·沸波【(全) ○ 詳見鶡鶡下】(雎鳩【황토색이고 눈이 움푹하며 우뚝히 서 있기를 좋아한다. 암수가 서로 사이 좋게 지내는데, 사귄 때는 나란히 날고 헤어지면 다른 곳에서 지낸다. 물 위를 빙빙 돌며 날다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시경언해』에서 ‘증경이’라고 했으나 아마도 아닌 듯하다.】…(이하 생략)<sup>42</sup>

42 황문환 외, 앞의 책(2023a), 179쪽.

〈물명고 간: 7b〉

元央【棲土穴中 杏黃色 紅頭翠鬣 頭有白長毛 東醫謂之증경이 恐得之】黃鴨·匹鳥【소】婆羅迦隣提【梵語】(元央【땅속의 구멍에 사는데, (몸은) 살구빛 같은 노란색이고, 붉은 머리에 푸른 갈기가 있으며, 머리에 흰색의 긴 털이 나 있다. 『동의보감』에서 ‘증경이’라 하였으니, 옳은 말인 듯하다.】…(이하 생략)<sup>43</sup>

표3-‘雌鳩’와 ‘元央’의 한글대응어

표제어	시경언해	동의보감	재물보(4책본)	재물보(8권본)	『물명고』
雌鳩	증경이	-	증경이	증경이	- [증경이×]
鴛鴦	증경이	증경이	-	-	증경이

이렇게 『물명고』에서는 기존 어휘집에서 제시한 한글대응어를 비판하고 부정했지만, 한자물명에 부합하는 우리말 물명을 찾지 못한 경우 (무리해서) 새로운 한글대응어를 제시하지도 않고 잘못된 기존의 한글대응어를 답습하지도 않았다.<sup>44</sup>

간혹은 과제로 남겨 두기도 했다. ‘栢栗’은 『물명고』에서 직접 『재물보』를 저술한 李晩永을 언급한 항목 중 하나이다. 『재물보』에서는 4권본과 8책본이 모두 ‘栢栗’에 대해 “대개 ‘산유자[산유즈/山유즈]’ 종류”라고 했다. 그러나 『물명고』에서는 『재물보』에서 이와 같이 풀이한 것을 비판하고 당시의 현실을 반영한 다른 우리말 물명은 제시하지 않은 채 “마땅히 다시 징험해야 한다 [當更驗之]”고 했다.

43 위의 책, 321쪽.

44 이는 『재물보』가 『동의보감』의 권위를 선뜻 비판하지 못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紫苑’의 한글대응어를 『재물보』 8권본에서 ‘풀소옴나물’로 새로이 제시하면서도 『동의보감』의 ‘팅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병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물보(4책본) 冬: 84a〉

栲栗【葉如榆 木理堅韌而赤 可爲車輻 蓋산유조之類】○栲栳【(本)】(栲栗【익은 '榆'와 같고, 나뭇결이 단단하고 질기며 붉은데 수레 양쪽의 끝채를 만든다. 대개 '산유조' 종류이다.】…(이하 생략))

〈재물보(8권본) 8: 59a〉

栲栗【葉如榆 木理堅韌而赤 可爲車輻 蓋산유조之類】栲栳【(別名)】

〈물명고 곤: 37a~b〉

○栲栗【樹似榲桲而庫小 子如細栗 可食 木理堅韌而赤 可爲車輻 李上舍晚永 疑爲산유자 然栲是周時果品 未知산유자能有美實否 當更驗之】栲·栳【全】(○栲栗【나무가 '榲桲'과 비슷하면서 짧고 작다. 열매가 작은 밤과 같은데 먹을 수 있다. 나뭇결이 단단하고 질기며 붉은데 수레 양쪽의 끝채[車輻]를 만든다. 상사(上舍) 이만영은 '산유자'인 듯하다고 하였으나, '栳'는 주나라 때 과일의 품종이니, '산유자'가 맛 좋은 열매인지의 여부는 잘 모르겠다. 마땅히 다시 징험해야 한다.】栲·栳【('栲栗'과) 같다.】<sup>45</sup>)

『물명고』에 보이는 이러한 논증이 비단 한글대응어에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여러 한자물명에 대한 按語에도 논증의 과정을 담고 있어 이러한 논증은 『물명고』의 전반적인 특징이며 그 특징이 한글대응어에 대해서도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생각하면, 한글대응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논증을 베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것에 대한 유희의 관심이 가볍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고도 할 수 있다.

45 황문환 외, 앞의 책(2023k), 232쪽.

### Ⅲ. 분포와 관련된 특징

---

#### 1. 개별 하위어에 대한 한글대응어

『물명고』는 한글대응어의 분포와 관련해서도 『재물보』 같은 물명서와 차이를 보인다. 『재물보』에서는 한글대응어를 제시함에 있어 상위어를 중심으로 했다면 『물명고』에서는 상위어에 대한 한글대응어뿐 아니라 그 개별 하위어까지 한글대응어를 제시했다. ‘芥’의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동의보감 탕액편2: 30a〉

芥菜【갓 又云 계즈】

白芥【흰 계즈】

〈재물보(4책본) 冬: 47b~48a〉

芥【갓】○芥藍【芥心嫩臺 名芥藍】青芥【似菘有毛】刺芥【全】大芥【大葉皺紋 色尤深綠 味更辛辣】皺葉芥【全】馬芥【葉如青芥】花芥【葉多缺刻如蘿菈】紫芥【莖葉皆紫如蘿】石芥【低小】<sup>46</sup>

白芥【八九月下種 冬生可食 春深莖二三尺 三月開黃花 香郁 角如芥 子如梁米 黃白色】○胡芥·蜀芥【(本)】

〈재물보(8권본) 8: 8b〉

○芥【갓】芥藍【芥心嫩臺 名芥藍】青芥【似菘有毛】刺芥【全】大芥【大葉皺紋

---

46 각 주해 부분은 『물명고』와 동일하므로 번역은 『물명고』의 것을 참조할 수 있다. 『재물보』 8권본의 경우도 동일하다.

色尤深綠 味更辛辣】皺葉芥【全】馬芥【葉如青芥】花芥【葉多缺刻如蘿菈】  
紫芥【莖葉皆紫如蘇】石芥【低小】

○白芥【秋下種 冬生可食 春深莖二三尺 開黃花 香郁 角如芥 子如梁米 黃白色】胡  
芥○蜀芥【別名】

〈물명고 곤: 8b〉

芥【其種不一 𧄲】芥藍【芥心嫩臺】青芥【似菘有毛 疑今동갓】刺芥【全】大芥  
【大葉皺紋 色尤深綠 味更辛辣 疑今계자】皺葉芥【全】馬芥【葉如青芥】花芥  
【葉多缺刻如蘿菈 疑今밋갓】紫芥【莖葉皆紫如蘿】白芥【秋種夏結角如芥 子  
如梁米 黃白色 𧄲계자】胡芥·蜀芥【全】石芥【低小者 此恐是산갓 然据文勢觀  
之 似亦家種】芥醋【擣芥子作汁 和醋醬爲味者】芥醬【全】(芥【그 종류가 한 가  
지가 아니다. '갓'이다.】芥藍【갓의 심에 있는 어린 꽃대이다.】青芥【'菘'과 비  
슷한데 털이 있다. 아마 '동갓'인 듯하다.】刺芥【('青芥'와 같다.】大芥【큰 잎에  
주름 무늬가 있으며 색이 진녹색이다. 맛도 매우 맵다. 아마 '계자'인 듯하다.】  
皺葉芥【('大芥'와 같다.】馬芥【잎이 '青芥'와 비슷하다.】花芥【잎이 톱니 모양  
이 많아 '蘿菈'와 비슷하다. 아마 지금의 '밋갓'인 듯하다.】紫芥【줄기와 잎이 모  
두 붉은 것이 차조기[蘿]와 비슷하다.】白芥【가을에 씨를 뿌리면 여름에 '芥子'  
와 같은 꼬투리를 맺는데 그 씨는 기장[梁米]과 비슷하며 황백색이다. '𧄲계자'  
이다.】胡芥·蜀芥【('白芥'와 같다.】石芥【키가 낮으며 작은 것이다. 이것이 아  
마 '산갓'인 듯하다. 그러나 문장의 기세를 보면 또한 농가에서도 씨를 뿌려 심  
은 듯하다.】…(이하 생략)】<sup>47</sup>

47 황문환 외, 앞의 책(2023g), 255쪽.

표4- '芥' 관련 한글대응어 목록

표제어	동의보감	재물보 4책본	재물보 8권본	물명고
芥	갓, 계조	갓	갓	갓
靑芥	-	-	-	동갓
大芥	-	-	-	계자
馬芥	-	-	-	-
花芥	-	-	-	밋갓
紫芥	-	-	-	-
白芥	흰 계조	-	-	빅계자
石芥	-	-	-	산갓

『물명고』에서 유희는 ‘芥’에 대해 “그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뒤이어 여러 종류의 ‘芥’를 소개하고 있다. <표4>와 같이 이를 『재물보』와 비교해 보면, 『재물보』와 『물명고』가 ‘芥’의 종류와 관련된 표제어 수는 ‘芥, 靑芥, 大芥, 馬芥, 花芥, 紫芥, 白芥, 石芥’까지 9개로 동일하다.<sup>48</sup> 그런데 『재물보』 4책본과 8권본에서는 모두 상위어인 ‘芥’에 대해서만 ‘갓’으로 한글대응어를 제시했을 뿐 ‘芥’의 종류와 관련된 나머지 하위어에 대해서는 한글대응어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sup>49</sup> 반면, 『물명고』에서는 ‘靑芥’에는 ‘동갓’, ‘大

48 ‘芥’ 부분에서 소개하고 있는 ‘芥藍【芥心嫩臺】’와 ‘芥醋【搗芥子作汁 和醋醬爲味者】’芥醬【소】은 제외했다. ‘芥藍’은 ‘갓의 심에 있는 어린 꽃대(芥心嫩臺)’이므로 ‘芥’와 부분관계에 있는 표제어이고, ‘芥醋’는 겨자로 만든 양념장의 일종으로 역시 ‘芥’의 다른 하위어와 층위가 다르다. ‘芥’ 부분의 표제어에서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은 『재물보』에서는 ‘芥’ 부분에서 ‘芥醋’가 수록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芥醋’는 ‘醋’ 아래에서 소개하고 있다.

49 『광재물보』도 『재물보』와 동일하다.  
 芥【갓】 靑芥【似白菘 有柔毛】刺芥 大芥【大葉皺文 味更辛辣】皺葉芥 馬芥【似靑芥】花芥【葉多缺刻】紫芥【莖葉皆紫】石芥【莖葉低小】臘菜【冬月食者】春菜【春月食者】夏芥【夏月食者】芥藍【芥心嫩臺】芥醬【取其子研末泡過 味辛香】白芥【莖高一二尺 葉似芥子如梁米白色】胡芥·蜀芥 <광재물보 3: 40a>

芥’에는 ‘계자’, ‘花芥’에는 ‘밋갓’, ‘白芥’에는 ‘흰계즈’, ‘石芥’에는 ‘산갓’<sup>50</sup>으로 한글대응어를 수록하고 있다.

『재물보』에서도 개별 하위어에 한글대응어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별 하위어에 한글대응어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그 정밀함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형태에 따른 말의 종류를 소개한 부분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재물보(4책본)冬: 12a~b〉

○駢【赤黃色 절다】駢【赤身黑鬣 뉴마】紫駢【조류】驊騮【馬色如花之赤】駢【赤黑色】栗色馬【구령절다】紅紗馬【부루마】駮【駢白日駮】駮【駢馬白腹 뉴거흘】○驪【深黑色 가라물】駮【黑馬白面】雒【音洛 黑馬白鬣】駮【黑馬黃脊】驪【音律 黑馬白跨】驪【馬黑色如鐵】驪【音馱 青驪白鱗文 포도점】連錢【驪也】馱【音馱 驪白雜毛 烏驪也 먹총】駮【青驪】駮【全】盜驪【馬淺青色 竊驪也 dot가라】駮【音貴 淺黑色 담가라】陰【全】駮【毛淺黑而白兼雜毛者 청부루】泥驪【全】駮【蒼白雜毛 츄마】駮【音炭 灰色】駮【青白雜毛】荏鐵馬【全】○駮【白馬黑鬣】駮【白馬黑唇】驪【音旃 白馬黑脊】銀褐馬【설아물】駮【縞身赤鬣】皇【黃白色】駮【黃白雜色】○駮【黃馬黑喙】○白顛【소뿔성】戴星馬·玉頂馬·的類馬【全】○駮【額白至唇 一曰流星貫唇 간자】縣【額白 下達至鼻莖】○粉背馬【白喙 거흘물】○線臉馬【잡불물】○銀蹄馬【四足白】踏雪馬·首【全】○駮【音注 膝上皆白】○駮【音劬 後足皆白】駮【後左足白】駮【後右足白】孤蹄【後一足白】駮【音奚 前足皆白】駮【前右足白】駮【前左足白】五明馬【頭戴星 四蹄白

50 ‘石芥’의 한글대응어로 제시된 ‘산갓’은 ‘갓’의 일종이 아니라 ‘쟁이냉이’의 이칭으로 [이우철, 『한국 식물명의 유래』(서울: 일조각, 2005), 158쪽], ‘냉이’의 일종에 해당된다 [황문환 외, 앞의 책(2023g), 257쪽]. 현대의 분류로 따지면 ‘芥’의 하위어라 할 수 없지만 여기서는 『물명고』의 분류에 따라 ‘芥’의 하위어로 제시한다.



者】○白州【州 竅也 馬白尼者】騶【馬尾本白】○豹臀馬【구불자알】○魚【兩目  
白 쌍골희】𩺰【一目白 외골희】環眼馬【골희눈】○驪【音匆 馬曲脊 새오등】○  
龍頭馬【룽두마(俗)】○駟【音匡 馬耳曲 양귀】

〈재물보(8권본) 7: 13b~14a〉

○駉【赤黃色 절다】駉【赤身黑鬣 류마】棗騮【騮別名】紫駉【조류】驊騮【馬  
色如花之赤】驪【赤黑色】栗色馬【구렁절다】紅紗馬【적부루마】駉【류부루 駉  
白曰駉】駉【駉馬白腹 류거흘】○驪【深黑色 가라】駉【黑馬白面】雒【音洛 黑  
馬白鬣】駉【黑馬黃脊】駉【音律 黑馬白跨 쌍창어리】驪【馬黑色如鐵】驪【音  
口 青驪白鱗文 포도절】連錢【全】驪【驪別名】駉【青驪繁鬣】駉【驪白雜色 烏驪  
也 먹충】駉【青驪】駉【全】盜驪【馬淺青色 竊驪也 돛가라】駉【音貴 淺黑色 달  
가라】陰【全】駉【毛淺黑而白兼雜毛者 침부루】泥驪【全】駉【蒼白雜毛 추마】灰  
馬【駉別名】駉【灰色】驪【青白雜毛】荏鐵馬【全】○駉【白馬黑鬣】駉【白馬黑  
唇】駉【音旃 白馬黑脊】銀褐馬【설아물】駉【縞身赤鬣】皇【黃白色】駉【黃白  
雜色】駉【黃馬黑喙】○白顛【쇼뒤성】戴星馬○的類馬○駉【全】○驪【額白至  
唇 一曰流星貫唇 간자】縣【額白 下達鼻莖】○粉箝馬【白喙 거흘물】駉【面額皆  
白】白達素縣【縣 鼻莖也 言鼻莖素色】○線臉馬【잘볼물】○鼻【音注 馬膝上皆  
白】○銀蹄馬【四足白】駉【全】踏雪馬【全】五明馬【頭戴星 四足白】駉【音劬  
後足皆白】鼻【後右足白】駉【後右足白】孤蹄【後一足白】駉【前足皆白】啓【前  
右足白】○蹄【前左足白】白州【州 竅也 馬白尼】騶【尾本白】○豹臀馬【구불자  
알】花馬【월아】○環眼馬【골희눈】魚【쌍골희】𩺰【외골희】驪【馬曲脊 새오  
등】龍頭馬【룽두마】○駉【馬耳曲 양귀】

〈물명고 권: 9a~b〉

驪【鬣尾青白 총이】駉【철청총이】荏鐵馬【全】驪【년전총이】驪·連錢【全】駉

【陰白雜毛 그은총이】泥驄【全】𩇑【먹총이】烏驄【全】駟【뚝총이】驪【가라】  
 驥【청가라】騄【담가라】盜驪【뚝가라】雒【표가라】騶【黑馬黃鬣】騄【青驪繁  
 鬣】駟【赤身 而脛鬣皆黑】棗騶【紫騶】駟【驪馬白腹 료거힐】騄【驪馬黃脊】黃  
 【황고라】駟【黃馬黑喙 공고라】騄【赤黃 절다】驪騶【부절다】兔【全】驥【구렁  
 절다】栗色馬【全】驪【鬣尾皆白 표절다】駟【가리온 或曰白馬黑鬣 非】駟【빅설  
 총이 或曰白馬黑唇】銀褐馬【설아마】驪【白馬黑脊】駟【찬간자】達【素縣 실간  
 자】駟【소틴설】白顛·戴星·玉頂·的類【全】粉背馬【거흘물】線臉馬【잠불물】  
 驪【流星貫唇 함오】銜禍【全】驪【骭有白毫】驪【四膝皆白】首【四足皆白】銀蹄  
 馬·踏雪馬【全】五明馬【頭戴星 足踏雪】駟【前足皆白】狗【後足皆白】啓【前右  
 足白】蹄【前左足白】驪【後右足白】鼻【後左足白】孤蹄【後一足白】花馬【월  
 아】驪【쌍창월아】驪【삿흰말】白州【全】駟【尾本白 한박월아】駟【尾白】豹臂  
 馬【구불자힐 或曰황부루】駟【도화잠불】駟【류부루 或云월아】駟【적부루】紅  
 紗馬【全駟】驪【황부루 或云 식고라】駟【청부루】駟【灰馬全】駟【縞身赤鬣】  
 環眼【골희는】魚【쌍골희】瞶【외골희】驪【시오등】龍頭馬【롱두마】駟【양  
 권】駟【양털】

『재물보』와 『물명고』에서는 위에서 보는 것처럼 형태에 따른 말의 종류를 여러 가지 소개하고 있다. <표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는 표제어의 수 자체에도 차이가 다소 있지만 무엇보다 이들에 대해 한글대응어를 제시한 데에서 더 많은 차이를 보인다. 형태에 따른 말의 종류와 관련된 하위어로 『재물보』 4책본은 25개, 8권본은 28개의 표제어에 한글대응어를 제시했지만 『물명고』에서는 44개의 표제어에 한글대응어를 제시했으며 관련 한글대응어의 항목수는 46개이다.<sup>51</sup>

51 『광재물보』도 형태에 따른 말 이름과 관련하여 한글대응어를 제시한 것은 24개뿐이다.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개별 하위어에 대한 한글대응어를 얼마나 자세히 제시하느냐에 있어서 『물명고』는 단연 독보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52</sup>

표5-‘馬’종류 하위 표제어와 한글대응어의 수량

	형태에 따른 말 종류 관련 표제어	말 종류 한글대응어 제시 표제어
재물보(4책본)	55개	25개
재물보(8권본)	61개	28개
물명고	63개	44개 [한글대응어 항목 수 46개]

## 2. 유의어에 대한 한글대응어

『재물보』나 『광재물보』와 같은 물명서에서는 유의어에 대해 한글대응어를 제시한 예가 거의 없지만 『물명고』에서는 유의어에 대해서도 한글대응어에 대해 상고하여 반영한 예를 확인할 수 있다.

〈재물보(4책본) 冬: 49b〉

苦菜【春初生苗 有赤莖白莖二種 中空 折之 有白汁 葉抱莖幹 莖若挺出葉中 黃花如野菊花 罷則上有白毛茸 茸隨風飄揚 落處即生 고돌비】○茶·苦苣·苦蕒·游冬·扁苣·老鶴菜·天香菜【(本)】<sup>53</sup>

〈광재물보 4: 42a-43a〉

驪【포도점】驪【청부류】騊【먹총】驪【가리】驪【담가리】盜驪【돛가리】騾【류거홀】駢【적다마】栗色馬【구렁적다】銀樹馬【설아마】白驪【소티성】紛嘴馬【거홀마】線臉馬【잠불마】駢【간자】騷【쌍창어레】豹臀馬【구불즈알】駮【류부류】驪【청부류】騾【추마】環眼馬【골회눈】魚【쌍골회】驢【외골회】驢【시오등】龍頭馬【농두마】

52 이는 한글대응어의 항목 수와도 관련된다. 항목 수에 대해서는 4장에서 후술할 것이다.

53 주해 부분이 『물명고』와 일치하므로 번역은 『물명고』의 것을 참조하기 바란다. 『재물보』 8권본의 경우도 동일하다.

〈재물보(8권본) 8: 11b〉

○苦菜【春草生苗 有赤莖白莖二種 中空 折之有白汁 葉抱莖幹 莖若挺出 葉中黃花 如野菊花 罷則上有白毛茸茸 隨風飄揚 落處即生 고돌비】茶○苦苣○苦蕒○  
游冬○楸苣○老鶴菜 天香菜【別名】苳【全】

〈물명고 곤: 7b~8a〉

苦菜【春初生苗 有赤莖白莖二種 中空 折之 有白汁 葉抱莖幹 莖若挺出葉中 黃花如 野菊花 罷則上有白毛茸 茸隨風飄揚 落處即生 고돌비】苦苣·游冬·楸苣·老鶴 菜·天香菜·茶·苳·苦蕒·鶴兒菜·吳葵【全 ○ 苦菜之別名如此 然游冬二字 則 與쓸비相符 苳則說者謂是사라부로 古月令有吳葵 楊用修亦以爲苦菜 盖生汁生 絮之類 最不可詳辨也】(苦菜【이른 봄에 싹이 나는데 붉은 줄기와 흰 줄기 두 종이 있다. 줄기 속은 비어 있으며 꺾으면 하얀 즙이 나온다. 잎이 줄기를 감싸고 있어 줄기가 마치 잎 가운데서 솟아 나온 듯하다. 노란 꽃은 들국화와 같고 꽃이 지면 위에 흰 잔털이 생겨 그 잔털이 바람을 따라 날리다가 떨어지는 곳에서 자란다. ‘고돌비’이다.】苦苣·游冬·楸苣·老鶴菜·天香菜·茶·苳·苦蕒·鶴兒菜·吳葵【(‘苦菜’와) 같다. ○ ‘苦菜’의 다른 이름이 이와 같다. 그러나 ‘游冬’ 두 글자는 곧 ‘쓸비’와 더불어 서로 부합한다. ‘苳’는 설명한 사람들이 ‘사라부로’라고 한다. 옛 『월령(月令)』에 ‘吳葵’가 있는데 양용수(楊用修)도 역시 ‘苦菜’라고 생각했다. 대개 즙이 나오는 것과 꽃솜[絮]이 나오는 부류는 더 상세하게 분별할 수 없다.】)<sup>54</sup>

『재물보』에서는 표제어인 ‘苦菜’에 대해서만 ‘고돌비’라고 한글대응어를 제시했다. 〈표6〉에 정리된 것처럼, 여러 유의어 중 ‘游冬’과 ‘苳’는 『재물보』

54 황문환 외, 앞의 책(2023g), 227쪽.

표6- ‘苦菜’ 관련 한글대응어

	표제어	유의어
재물보 4책본	苦菜【고들비】	茶·苦苣·苦蕒·游冬·褊苣·老鸛菜·天香菜 ※ 한글대응어 x
재물보 8권본	苦菜【고들비】	茶○苦苣○苦蕒○游冬○褊苣○老鸛菜 天香菜【別名】苣【全】 ※ 한글대응어 x
물명고	苦菜【고들비】	苦苣·游冬·褊苣·老鸛菜·天香菜·茶·苣·苦蕒·鵝兒菜·吳葵 ※ 한글대응어: 游冬【쌔비】, 苣【사라부로】

와 『물명고』에서 공통으로 소개하고 있는 유의어인데, 『물명고』에서만 유의어로 제시된 ‘游冬’에 대해서 두 글자가 곧 ‘쌔배[쌔비]’와 더불어 서로 부합한다고 하고, ‘苣’에 대해서는 설명한 사람들이 ‘사라부루[사라부로]’라고 한 다면서 한글대응어를 제시했다.<sup>55</sup>

이 외에도 『물명고』에서는 ‘鸛’의 유의어 ‘晨風’, ‘鱗’의 유의어 ‘魴魚’, ‘蟋蟀’의 유의어 ‘促織’, ‘匏瓜’의 유의어 ‘瓠瓜’, ‘虎杖’의 유의어 ‘大蟲杖’ 등과 ‘委葉·蓼’, ‘核桃’의 유의어 ‘胡桃’에 대해서도 한글대응어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물명고』에서는 표제어 중에서도 개별 하위어에 한글대응어를 수록하기도 하고, 유의어에도 한글대응어를 수록하기도 하는 등 다층적인 분포를 보인다. 이와 같은 양상은 표제어에 대해서만 한글대응어를 제시하고 있는 『재물보』와 같은 다른 물명서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55 『광재물보』도 『재물보』와 동일하게 유의어에 대한 한글대응어는 제시하지 않았다.  
苦菜【고들비 莖有赤白二種 其莖中空 折之有白汁 開黃花如野菊花 罷上有白毛茸茸】茶  
苣·苦苣·野苣·苦蕒·游冬·褊苣·老鸛菜·天香菜 <광재물보 3: 41b>

## IV. 항목 수와 관련된 특징

### 1. 부류별 최다 한글대응어의 수록

III장에서 언급한 『물명고』의 개별 하위어나 유의어에 대한 한글대응어의 제시는 『물명고』 수록 한글대응어의 항목 수와 직결된다. 최근 박부자의 연구<sup>56</sup>에서 『물명고』의 분류를 중심으로 『재물보』(4책본), 『광재물보』의 분류명이 동일하고 포함 대상이 동일한 분류에 수록된 한글대응어의 수를 비교하여 <표7>처럼 제시한 바 있다.

<표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羽蟲”에 수록된 한글대응어는 『물명고』가 119개로 가장 많다. 또 『물명고』의 ‘物有情類-獸’는 『재물보』의 ‘毛蟲譜’, 『광재물보』의 ‘獸類’와 그 대상이 대체로 일치하는데 역시 『물명고』의 한글대응어가 236개로 가장 많다. ‘水族’의 경우도 『물명고』, 『광재물보』, 『재물보』의 순으로 한글대응어를 수록하고 있다. 『광재물보』에 와서 동일 부류에 속하는 한글대응어의 수가 『재물보』보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물명고』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물명

표7-물명 3서 수록 한글대응어를 제시한 표제어 수

		재물보(4책본)	물명고	광재물보
羽蟲		95	119	112
獸		185	236	231
水族	鱗蟲	89	100	90
	介蟲	28(‘蛇’류 7)	47	39(‘蛇’류 9)
昆蟲		92	137	100

56 박부자, 「유희 『物名考』에 수록된 한글대응어의 가치」, 『동방학지』 196(2021b), 125~150쪽.

고』 수록 한글대응어의 수가 표제항의 수나 어휘 수록 범위에서 가장 방대하다고 알려진 『재물보』, 『광재물보』보다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물명고』가 다른 자료에 비해 동일 부류의 물명 어휘를 매우 촘촘하게 수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57</sup>

## 2. 독자적인 한글대응어의 추가

『물명고』의 한글대응어 중에는 관련 문헌에 제시된 것과 다른 새로운 한글대응어를 제시한 경우도 드물지 않다. ‘白蒿’는 『동의보감』, 『재물보』, 『물명고』에서 모두 표제어로 수록하고 있는 항목 중 하나이다. 『동의보감』에서는 ‘白蒿’를 ‘근 날 제 흰뿌’이라 했는데 『재물보』에서는 4책본과 8권본이 모두 ‘물쑥’으로 제시했다. 『물명고』는 『재물보』와 비교할 때 표제어, 유의어, 한글대응어가 모두 차이를 보인다.

〈동의보감(1613) 탕액편3: 1a〉

白蒿【근 날 제 흰뿌… 白蒿, 蓬蒿也 …(이하 생략)】

〈재물보(4책본) 冬: 66a〉

白蒿【生陂澤中 二月發苗 葉似嫩艾而歧細 其莖或赤或白 葉面青背白 其根白脆 采其根莖 生熟焗曝 皆可食 물쑥】○繫·由胡·蔓蒿·蒿【(本)】(白蒿【연못의 제방에서 나고, 2월에 싹이 나며, 잎은 어린 ‘艾’와 비슷하며 가지가 가늘다. 줄기는 붉기도 하고 희기도 하며 잎은 앞면은 푸르고 뒷면은 희다. 뿌리는 희고 무르다. 뿌리와 줄기를 채취하여 생것이나 익힌 것을 절였다가 햇볕에 말리면 모두 먹을 수 있

57 위의 논문, 135~136쪽.

다. ‘물썩’이다.】…(이하 생략)<sup>58</sup>

〈재물보(8권본) 8: 34b〉

○白蒿【生陂澤畔 二月生苗 葉如嫩艾而歧細 莖或赤或白 葉面青背白 其根白脆 采其根莖 生熟菹曝 皆可食 물썩】藜○由胡○蔓蒿○蕎藹【別名】

〈물명고 곤: 9b〉

蔓蒿【生水澤邊 正月根旁生白莖 香美可食 葉似艾 白色多歧 長數寸 高丈餘 物썩】  
購·蕎藹【全】○白蒿【葉粗於青蒿 從初生至枯 白於眾蒿 所在有之 蓋似艾而粗澀 東醫謂之 흰썩 未知如何 恐是 신발썩】藜·幡蒿【全 爾雅註本經 並以白蒿爲蓬蒿 然諸書又多別出者 如何】(蔓蒿【물가에서 자란다. 정월이면 뿌리 옆에서 흰 줄기가 나오는데 향과 맛이 좋아 먹을 수 있다. 잎은 ‘艾’와 비슷한데 흰색으로 가지가 많다. 길이는 여러 치이며 높이는 한 길 남짓이다. ‘물썩’이다.】購·蕎藹【(‘蔓蒿’와) 같다.】○白蒿【잎이 ‘青蒿’보다 거칠며 처음 날 때부터 마를 때까지 여러 ‘蒿’보다 희며 곳곳에 있다. 대개 ‘艾’와 비슷한데 거칠고 꺾끄럽다. 『동의보감』에서는 ‘흰썩’이라 부르는데 어떤 것인지 모른다. 아마 ‘신발썩’인 듯하다.】藜·幡蒿【(‘白蒿’와) 같다. 『이아(爾雅)』의 주와 『본경(本經)』에는 ‘白蒿’를 ‘蓬蒿’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러 책에도 대부분 구별하여 나오니 어찌 된 것인가?】<sup>59</sup>

유희는 『동의보감』에서 ‘白蒿’를 ‘蓬蒿’와 같은 것으로 보고 ‘곧 날 제 흰썩’이라 한글대응어를 제시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에 있었다. 『물명고』에서 “『동의보감』에서는 ‘흰썩[흰썩]’이라 부르는데 어떤 것인지 모른다”고

58 현대어역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교전DB(<https://www.medicclassics.kr>)를 참조하여 필자가 다듬은 것이다.

59 황문환 외, 앞의 책(2023h), 25쪽.



했고 유희의 다른 저술인 『시물명고』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드러난다. 유희는 『시물명고』에서 “‘白蒿’는 『본초』에서는 ‘蓬蒿’라 말했는데, 처음 날 때부터 말라죽을 때까지 일반 쭉보다 하얗다고 한다.”면서 “『동의보감』에서 ‘白蒿’를 ‘간날제흰쭉’이라 했는데, (‘간날제흰쭉’은) 늙은 뒤에는 하얗지 않다는 점을 말하는 듯하다.”고 했다. 즉 ‘白蒿’는 말라죽을 때까지 하얀데, ‘간날제흰쭉’은 늙은 뒤에는 하얗지 않으니 ‘白蒿’는 ‘간날제흰쭉’이 아니라는 것이다.

○繫【白蒿《本草》謂之蓬蒿 自初生至枯 白於衆蒿 頗似細艾云 而《東醫》乃曰 간날제흰쭉 似謂老後不白 故舊釋則以爲 다복쭉 是雖初生白茸 而夏秋則靑硬者也 寧合於《爾雅》之文乎 盖蓬蒿一種 未可詳識 意今艾葉之深靑者歟 새발쭉】〈문통 3(시물명고): 3a〉(繫【‘白蒿’이다. 『본초』에서는 ‘蓬蒿’라 말했는데, 처음 날 때부터 말라죽을 때까지 일반 쭉보다 하얗고, 가는 쭉과 매우 비슷하다고 한다. 『동의보감』에서 ‘간날제흰쭉’이라 하였으니, 늙은 뒤에는 하얗지 않다는 점을 말하는 듯하다. 그러므로 예전 언해에서 ‘다복쭉’이라고 여겼는데, 이것은 비록 처음 날 때에는 색이 하얗고 부드러우나, 여름과 가을이 되면 파래지고 단단하게 변한다. 그러니 어찌 『이야』의 문장과 부합하겠는가! 대개 ‘蓬蒿’의 일종인 것 같지만 상세하게 알 수 없다. 생각건대 지금 쭉 잎이 심하게 갈라진 것을 가리키는 듯하다. ‘새발쭉’】<sup>60</sup>

『재물보』를 저술한 이만영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거는 밝히고 있지 않으나 『동의보감』을 따르지 않고 <표8>에 정리한 것처럼 ‘白蒿’에 대해 ‘물쭉’으로 풀이했다. 그러나 유희는 『재물보』의 처리도 맞지

60 번역은 황문환·김덕수·김동석·김정민·박부자·박용만, 2021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공동연구과제 ‘유희(柳僖) 『시물명고(詩物名考)』 역주 연구’ 결과물(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21)에서 가져온 것이다.

표8- '白蒿' 관련 한글대응어

자료명	표제어	한글대응어	유의어
동의보감	白蒿	근 날 제 흰박	蓬蒿
재물보(4책본)	白蒿	물썩	藜·由胡·藜蒿·藜
재물보(8권본)	白蒿	물썩	藜○由胡○藜蒿○藜購
물명고	藜蒿	물썩	購·藜藜
	白蒿	신발썩	藜·皤蒿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물보』에서 표제어 '白蒿'의 유의어로 제시되었던 '藜蒿'가 『물명고』에서는 '白蒿'와 구분하여 별도의 표제어로 소개했다. 그리고 『재물보』에서 '白蒿'의 한글대응어로 제시했던 '물썩'을 『물명고』에서는 '藜蒿'의 한글대응어로 제시하면서<sup>61</sup> '白蒿'에 대해서는 '신발썩'인 듯하다고 하면서 '白蒿'에 대응되는 새로운 한글대응어를 제시했다.

관련 문헌의 한글대응어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새로운 이칭을 더한 경우도 있다. '蓂莢'에 대한 '니알히풀'이 바로 그런 예이다.

〈동의보감(1613) 탕액편3 : 16a〉

蓂莢子【초우윙씨】

〈재물보(4책본)冬: 72a〉

蓂莢【處處有之 苗高二三尺 葉似地黃·王不留行·紅藍等 而潤如三指 莖葉有細毛 四月開花 紫色 五月結實 有殼作罌子狀 如小石榴 房中子至細 青白色 如粟米粒】  
○天仙子·橫唐·行唐【(本)】(蓂莢【곳곳에 흔하다. 작은 높이가 2~3자이며 잎

61 『광재물보』는 『재물보』를 따랐다.

白蒿[물썩 生陂澤 白葉似嫩艾 而歧細 面青背白] 藜·藜·藜蒿·皤蒿·由胡<광재물보 3:18a>

은 ‘地黃’, ‘王不留行’, ‘紅藍’ 등과 비슷하며 너비는 손가락 3마디 정도이다. 줄기와 잎에 가는 털이 있다. 4월에 자색 꽃이 피고, 5월에 열매를 맺는다. 항아리 모양의 껍질이 있는데 작은 ‘石榴’만 하다. 씨방 속에 매우 작은 씨앗이 있는데 청색과 백색으로 조나 쌀의 낱알과 비슷하다.】…(이하 생략)<sup>62</sup>

〈재물보(8권본) 8: 44a〉

○莨菪【초우윙 處處有之 苗高二三尺 葉似地黃·紅藍等 而潤如三指 莖葉有細毛 四月開花 紫色 五月結實 有殼作罌子狀 如小石榴 房中子至細 青白色 如粟米粒】天仙子○橫唐○行唐【別名】<sup>63</sup>

〈물명고 곤: 12b〉

莨菪【處處有之 苗高二三尺 葉似地黃而開 有細毛 四月紫花 五月結殼如小石榴 中有子至細 青白色如粟米粒 초우윙 ○니알히풀 畧類大薊今年種明年拔秀 此家種 彼家生苗】天仙子·橫唐·行唐【全】水莨菪【別種名】(莨菪【곳곳에 흔하다. 싹은 높이가 2~3자이며 잎은 ‘地黃’과 비슷하며 넓은데, 가는 털이 있다. 4월에 자색 꽃이 피고 5월에 작은 ‘石榴’와 같은 씨를 맺는다. 가운데 매우 작은 씨앗이 있는데, 청색과 백색으로 조나 쌀의 낱알과 비슷하다. ‘초우윙’이다. ○‘니알히풀’이니 대략 ‘大薊’와 유사하며 금년에 씨를 뿌리면 이듬해 이삭이 나와 꽃이 핀다. 이 집에서 뿌리면 저 집에서도 싹이 난다.】…(이하 생략)<sup>64</sup>

62 현대어역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고전DB(<https://www.medicclassics.kr>)를 참조하여 필자가 다듬은 것이다.

63 『재물보』 8권본의 현대어역은 4책본과 대동소이하므로 『재물보』 4책본의 현대어역을 참조하기 바란다.

64 황문환 외, 앞의 책(2023h), 126쪽.

이와 같은 독자적인 한글대응어의 추가는 결국 『물명고』의 한글대응어 항목 수에도 영향을 미쳐 『물명고』가 부류별 최다 한글대응어를 수록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 V. 결론

---

『물명고』의 한글대응어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는 그간 언어 내적인 측면에서 음운론적, 형태론적 특징을 밝히고 어휘를 일람하는 데에 집중되어 왔으나 이러한 접근이 『물명고』에서 한글대응어를 제시함에 있어 관련된 다른 문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특징을 제대로 보여주는 데에 어려웠다. 이에 이 글에서 크게 안어와 관련된 특징, 분포와 관련된 특징, 항목 수와 관련된 특징으로 나누어 『물명고』에 수록된 한글대응어의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물명고』에서는 한자물명뿐 아니라 한글대응어에 대해서도 고증의 과정을 담은 안어를 베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기존 어휘집의 한글대응어에 대한 비판과 근거 제시, 새로운 대안이나 과제 제시가 유희의 ‘안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이다. 분포와 관련해서는 『재물보』 등의 물명서와 달리 상위표제어뿐 아니라 개별 하위어와 유의어에 대해서도 한글대응어를 제시하여 다층적인 분포를 보였다. 분포와 관련된 이러한 특징은 항목 수와 관련된 특징에도 영향을 미쳐 『물명고』가 부류별 최다 한글대응어를 수록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로써 『물명고』에서 한글대응어를 제시함에 있어 관련 자료들과 비교하여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의 한계도 분명하다. 서론에 언급한 대로 이 글은 『물명고』에서 한글대응어와 관련하여 직접 언급한 인용 문헌을 중심으로 『물명고』 수록 한글대응어의 특징

을 살펴보았다. 이는 『물명고』에서 한글대응어와 관련하여 직접 언급한 자료로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물명고』 수록 한글대응어의 특징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간행된 여타의 물명서들과 폭넓게 그리고 정밀하게 비교한다면 『물명고』 수록 한글대응어의 특징과 가치가 어휘 하나하나에서부터 제시 양상에 이르기까지 보다 전면적으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조선 후기에 간행된 여타의 물명서를 폭넓게 다루지 못한 한계는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物名考』,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유희 후손가 기탁본, MF35-13458(乾); MF35-11920(坤).

『才物譜』, 서울대학교 규장각본, 奎4400.

『才物譜』, 국립중앙도서관본, 한古鮮91-23.

### 2. 논저

김민수(편), 『우리말 語源辭典』, 서울: 태학사, 1997.

김봉좌, 「우리나라 고유의 한자 물명에 대한 해석과 인용문헌 연구: 『재물보』, 『물명고』, 『광재물보』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물명서와 물명 연구』,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22, 43~63쪽.

박부자, 「한글물명을 통해 본 물명서의 상관관계: 『才物譜』, 『物名考』, 『廣才物譜』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물명 집성과 DB 구축 연구 사업” 학술대회 『조선 후기 물명 3서에 대한 기본적 고찰』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2021a, 81~104쪽.

박부자, 「유희 『物名考』에 수록된 한글대응어의 가치」, 『동방학지』 196, 2021b, 125~150쪽.

박부자, 「『물명고』에 수록된 우리말 풀이[諺釋]의 특징」, 『『물명고』의 종합적 검토』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한국연구소·어문생활사연구소, 2023, 155~184쪽.

백승창, 「『物名考』類에 대한 國語學的 研究: 어휘 분류와 조어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신경철, 「『物名考』의 動物名 語彙考」, 『論文集 3』, 강원: 상지대학병설실업전문대학, 1984, 1~21쪽.

신경철, 「『物名考』의 植物名 語彙考」, 『羨烏堂 金炯基 先生 八耄紀念國語學論叢』, 서울: 창학사, 1985, 233~254쪽.

신경철, 「『物名考』의 無生物名 語彙考」, 『論文集』 5, 강원: 상지대학병설실업전문대학, 1986, 1~21쪽.

- 신경철, 「物名考의 語彙 考察」, 『한국언어문학』 25, 1987, 41~66쪽.
- 신중진, 「곡물명 수록 어휘 자료집의 계보와 그 어휘 목록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54, 2013, 67~95쪽
- 신중진, 「사전학적 관점에서 본 『物名攷』와 『才物譜』의 영향 관계」, 『진단학보』 120, 2014, 105~127쪽.
- 심경호, 「朝鮮後期 漢字語彙分類集에 관하여」, 『朝鮮後期 漢字語彙 檢索辭典』,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1~34쪽.
- 심경호, 「柳僖 『物名考』의 注文과 按語에 대한 일 고찰」, 『조선시대 물명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한국학연구센터, 2014, 33~52쪽.
- 양연희, 「物名類攷에 관한 고찰: 語彙, 音韻과 文字表記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6.
- 윤향림, 「물명어휘집의 계통과 어휘 연구」,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이기문, 『國語語彙史研究』, 서울: 동아출판사, 1991
- 이우철, 『한국 식물명의 유래』, 서울: 일조각, 2005.
- 전광현, 「『물명류고』의 이본과 국어학적 특징에 대한 관건」, 『새국어생활』 10-3, 2000, 43~62쪽.
- 조재윤, 「『物名類攷』의 研究: 表記와 音韻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 조항범, 『국어 어원론』, 청주: 도서출판 개신.
- 한국어문교육연구회·한국어문화회(편), 『柳僖의 生涯와 國語學 資料集』, 한국어문교육연구회·한국어문화회, 2000.
- 홍윤표, 「柳僖의 『物名攷』」, 『어문연구』 28-4, 2000, 277~304쪽.
- 홍윤표, 「『物名考』에 대한 고찰」, 『진단학보』 118, 2013, 167~211쪽.
- 황문환, 「柳僖의 才物譜」 비관을 통해 본 『物名考』의 차별성: 1807년 柳僖가 李晩永에게 보낸 편지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2, 2016, 79~113쪽.
- 황문환·김정민, 「『才物譜』의 이본 계열과 선후 관계」, 『국어사연구』 35, 2022, 175~212쪽.
- 황문환·김건곤·김덕수·김동석·김봉좌·김정민·박부자·박용만·안장리·이화숙·조영준·조정아·황선엽, 『물명고 역해 1』, 서울: 역락, 2023a.
- 황문환·김건곤·김덕수·김동석·김봉좌·김정민·박부자·박용만·안장리·이화숙·조영준·조정아·황선엽, 『물명고 역해 2』, 서울: 역락, 2023b.
- 황문환·김건곤·김덕수·김동석·김봉좌·김정민·박부자·박용만·안장리·이화숙·조영준·조정아·황선엽, 『물명고 역해』 3, 서울: 역락, 2023c.

- 황문환·김건곤·김덕수·김동석·김봉좌·김정민·박부자·박용만·안장리·이화숙·조영  
 준·조정아·황선엽, 『물명고 역해 4』, 서울: 역락, 2023d.
- 황문환·김건곤·김덕수·김동석·김봉좌·김정민·박부자·박용만·안장리·이화숙·조영  
 준·조정아·황선엽, 『물명고 역해 5』, 서울: 역락, 2023e.
- 황문환·김건곤·김덕수·김동석·김봉좌·김정민·박부자·박용만·안장리·이화숙·조영  
 준·조정아·황선엽, 『물명고 역해 6』, 서울: 역락, 2023f.
- 황문환·김건곤·김덕수·김동석·김봉좌·김정민·박부자·박용만·안장리·이화숙·조영  
 준·조정아·황선엽, 『물명고 역해 7』, 서울: 역락, 2023g.
- 황문환·김건곤·김덕수·김동석·김봉좌·김정민·박부자·박용만·안장리·이화숙·조영  
 준·조정아·황선엽, 『물명고 역해 8』, 서울: 역락, 2023h.
- 황문환·김건곤·김덕수·김동석·김봉좌·김정민·박부자·박용만·안장리·이화숙·조영  
 준·조정아·황선엽, 『물명고 역해 9』, 서울: 역락, 2023i.
- 황문환·김건곤·김덕수·김동석·김봉좌·김정민·박부자·박용만·안장리·이화숙·조영  
 준·조정아·황선엽, 『물명고 역해 10』, 서울: 역락, 2023j.
- 황문환·김건곤·김덕수·김동석·김봉좌·김정민·박부자·박용만·안장리·이화숙·조영  
 준·조정아·황선엽, 『물명고 역해 11』, 서울: 역락, 2023k.
- 황문환·김건곤·김덕수·김동석·김봉좌·김정민·박부자·박용만·안장리·이화숙·조영  
 준·조정아·황선엽, 『물명고 역해 12』, 서울: 역락, 2023l.
- 황문환·김건곤·김덕수·김동석·김봉좌·김정민·박부자·박용만·안장리·이화숙·조영  
 준·조정아·황선엽, 『물명고 역해 13』, 서울: 역락, 2023m.
- 황문환·김덕수·김동석·김정민·박부자·박용만, 2021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공동연구  
 과제 '유희(柳禧) 『시물명고(詩物名考)』 역주 연구' 결과물, 2021.

### 3. 기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교전DB(<https://www.medicclassics.kr>).



## 국문초록

『물명고』의 한글대응어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는 그간 언어 내적인 측면에서 음운론적, 형태론적 특징을 밝히고 어휘를 일람하는 데에 집중되어 왔으나 이러한 접근이 『물명고』에서 한글대응어를 제시함에 있어 관련된 다른 문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특징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이 글에서 크게 按語와 관련된 특징, 분포와 관련된 특징, 항목 수와 관련된 특징으로 나누어 『물명고』에 수록된 한글대응어의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물명고』에서는 한자물명뿐 아니라 한글대응어에 대해서도 고증의 과정을 담은 按語를 베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기존 어휘집의 한글대응어에 대한 비판과 근거 제시, 새로운 대안이나 과제 제시가 유희의 ‘按語’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이다. 분포와 관련해서는 『재물보』 등의 물명서와 달리 상위표제어뿐 아니라 개별 하위어와 유의어에 대해서도 한글대응어를 제시했다. 분포와 관련된 이러한 특징은 항목 수와 관련된 특징에도 영향을 미쳐 『물명고』가 부류별 최다 한글대응어를 수록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투고일 2024. 1. 7.

심사일 2024. 2. 14.

게재 확정일 2024. 2. 14.

주제어(keywords) 물명고(*Mulmyeonggo*), 한글대응어(vocabulary written as Korean old vernacular), 물명(names of things), 하위어(hyponyms), 유의어(synonyms), 항목 수(number of vocabulary items), 재물보(*Jaemulbo*), 동의보감(*Donguibogam*)

## Abstract

### Characteristics of Vocabulary Written as Korean Old Vernacular in

#### *Mulmyeonggo*(物名考)

Park, Pooja

Korean linguistic research on vocabulary written as Korean old vernacular included in *Mulmyeonggo*(物名考) has focused on revealing phonological and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listing vocabulary from an internal aspect of the language. However, it is difficult to adequately show how this approach differs from other related materials in presenting vocabulary written as Korean old vernacular in *Mulmyeonggo*(物名考). Accordingly, in this paper, we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s of vocabulary written as Korean old vernacular in *Mulmyeonggo*(物名考) to reveal how it differs from other related materials.

As a result of my research, *Mulmyeonggo*(物名考) presents vocabulary written as Korean old vernacular based on thorough historical research; this explains the process of argument through criticism and presentation of evidence for vocabulary written as Korean old vernacular included in the existing lexicon and the presentation of new alternatives or tasks, which is apparent in the author's own views(按語). Regarding distribution, vocabulary written as Korean old vernacular is presented in a very detailed manner, including both high-level entries and individual hyponyms. It is also presented for synonyms. These characteristics related to distribution also affected the features related to the number of vocabulary items. As a result, when examined by category, *Mulmyeonggo*(物名考) was characterized by having the most vocabulary written as Korean old vernacular.